

송중기, 아시아 스타로 발돋움하지 말입니다

'태양의 후예' 인기...아시아 진출 탄력

이달 말부터 중국 대규모 팬미팅 예정 중국 팬들 "드디어 송중기 온다" 기대 전문 에이전시와 손잡고 활발 활동 강화

KBS 2TV 수목드라마 '태양의 후예'의 주역 송중기가 '아시아 스타'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발걸음을 본격적으로 내딛는다.

13일 소속사 블러썸 엔터테인먼트 관계자에 따르면 '태양의 후예'가 한국과 중국에서 동시 방송하며 인기를 모으는 가운데 이달 말 송중기의 대규모 중국 팬미팅을 펼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구체적인 일정과 장소 등은 현재 중국 측과 조율 중이다. 송중기의 해외 팬미팅은 군 입대 전인 2012년 이후 처음이다.

또 송중기 측은 이를 발판 삼아 아시아 전역으로 활동 보폭을 넓히고 한류스타로서 입지를 굳힌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지현, 비, 장근석 등 한류스타의 중국 진출을 도왔던 HS e&s 등 전문 에이전시와 손잡고 향후 더욱 활발한 해외 활동을 펼치며 아시아 스타로서 위상을 확보해 간다는 전략이다.

이 같은 송중기의 해외 진출 선언에 현지 팬들과 한류 에이전시 관계자들은 벌써부터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 중국 팬들은 웨이보 등을 통해 "송중기가 드디어 온다" "송중기가 있는 곳에 나를 데려다 달라" "송중기를 매일 보고 싶다" 등의 글을 올리며 반기고 있다.

송중기는 그동안 SBS 예능프로그램 '런닝맨'의 게스트로 출연하며 중국 등 아시아 지역에서 눈길을 끌었다. 하지만 이제 온전한 드라마의 성공을 발판으로 그 주역으로서 해외 활동을 시작하게 됐다는 점에서 기대감을 더욱 키우고 있다.

특히 '태양의 후예'는 현재 그 절정으로 치달아가며 회를 거듭할수록 더 거센 파급력을 불러 모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 동영상 사이트인 아이치이에서 공개된 드라마는 13일 이후 현재 누적 조회수 5억건을 돌파했다. 매일 5000만건 이상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각종 현지매체들은 송중기가 일으킨 '여우바(오빠) 열풍'을 연일 보도하고 있다.

에이전시의 한 관계자는 "송중기는 흰 피부에 환철한 외모, 큰 키와 근육질 몸매 등 남성다운 매력으로 현지 시청자에 어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정현 기자 annjy@donga.com



연기자 송중기가 KBS 2TV 수목드라마 '태양의 후예'의 높은 인기로 힘입어 중국 진출을 눈앞에 뒀다. 그를 통해 현지 한류 붐은 더욱 뜨겁게 달아올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사진제공 | NEW

거미, '태양의 후예' OST로 아시아 활동 날개

(유 아 마이 에브리싱)

홍콩·대만 등 8개국 아이튠즈 차트 1위 중국어권 방송·행사 출연 문의 잇따라

가수 거미가 '태양의 후예' OST에 참여하면서 아시아 활동에 날개를 달게 됐다.

거미가 부른 삽입곡 '유 아 마이 에브리싱'이 10일 각종 음원사이트를 통해 공개된 후 국내외 차트를 강타하면서 해외시장의 주목도를 높였다. 특히 중국에서 드라마가 동시 방송되고 있어 중국어권 방송 및 행사 출연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중국과 일본 등 아시아 투어 준비해 온 거미의 '유 아 마이 에브리싱'은 발표 직후 국내 음악차트는 물론 홍콩, 대만,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 8개 국가의 아이튠즈 차트 1위에 올랐다. 미국과 베트남에서도 각각 2위와 4위를 기록했다. 거미의 노래가 이처럼 해외시장에서 집중적인 관심을 모은 것은 데뷔 이후 처음이다.

'유 아 마이 에브리싱'은 디지털 음원으로 나오기 전부터 극중 송중기·송혜교의 키스신에 삽입되는 등 드라마 주요 장면에서 깔리면서

시청자의 관심을 받아 왔다. 드라마가 해외에서도 히트하면서 삽입곡에 대한 관심도 동반 상승했다.

거미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 측은 "26·27일 서울공연을 끝으로 데뷔 첫 전국투어를 마무리하고 중국과 일본 등 아시아 활동을 이어나가려는 상황에서 OST에 참여한 드라마가 아시아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어 반갑다"며 "현재 해외에서 공연 및 방송 출연 등에 관해 여러 문의가 접수되고 있어 활동의 폭을 넓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거미는 26·27일 서울 한남동 블루스퀘어 삼성카드홀에서 전국투어 서울 앙코르 공연을 펼친다. 김원겸 기자 gyummy@donga.com



'태양의 후예'의 인기로 삽입곡을 부른 거미도 활동 영역을 넓힐 절호의 기회를 맞았다. 사진제공 | 씨제스엔터테인먼트

20억에 팔린 '태양의 후예' 일본 한류 다시 불 지피나

'태양의 후예'가 일본 한류의 불씨까지 다시 지필 태세다.

13일 드라마 한 관계자에 따르면 총 16부작인 '태양의 후예'는 일본에 회당 약 10만 달러의 가격으로 판권을 수출했다. 약 20억원에 달하는 액수다. 이에 따라 관계자들은 '태양의 후예'를 시작으로 일본 한류가 다시 기지

개를 쫓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태양의 후예'의 일본 판권 판매 규모는 수년 전 일본에서 한국드라마 붐이 한창 일고 있던 시절에 비하면 비교적 낮은 금액이다. 하지만 한국드라마의 일본 방영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 속에 얻은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현재 현지에서는 SNS 등을 통해 '태양의 후예' 주연인 송중기·송혜교와 관련한 사진이나 영상 등 게시물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이 드라마에는 일본에 많은 팬을 보유하고 있는 그룹 사이아의 운유도 출연하고 있어 팬들

의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

한국드라마는 2002년 '겨울연가'를 통해 현지 안방극장에 열풍을 일으킨 뒤 위성채널은 물론 지상과 채널까지 장악해 왔다. 수출가도 회당 10만 달러를 기본으로 20만 달러대를 유지했다. 2012년 일본 최고의 한류스타로 꼽히는 장근석의 출연작 '사랑비'는 회당 30만 달러로 선 판매되기도 했다.

하지만 일본의 우경화 경향이 두드러지고 심지어 '혐한류' 시기가 커지면서 현지 지상파 채널에서 한국드라마는 설 자리를 점점 잃어갔다. KNTV, DATV, 엠넷저팬 등 한류전

문 채널만이 드라마를 방영했다. 수출가 역시 10만 달러 이하로 떨어지는 등 최근 3년여 동안 한국드라마는 부활의 기회를 잡지 못해 왔다.

'태양의 후예'가 국내에서 신드롬에 가까운 인기를 얻으며 중국의 관심까지 더하는 가운데 이런 분위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뒤이어 장근석이 출연해 이달 말부터 방송하는 SBS 월화드라마 '대박'도 KNTV가 5월 방영할 예정이어서 향후 한류 움직임에 관심이 쏠린다.

백승미 기자 bsm@donga.com

스타, 그때 이런 일이 (1993년 3월 14일)

임지훈, 연 100회 공연 첫 무대



연예계에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능에 자신의 노력을 더해 스타덤에 오른 이들이 꽤 많다. 가요계에서도 이 같은 가수들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2월 설 명절 때 그룹 비투비의 멤버 임현식은 아버지와 함께 특집 라디오 프로그램을 공동 진행해 화제를 모았다. 2월 9일 밤 KBS 해피FM '밤을 잊은 그대'였다. 부자는 이날 호흡을 맞춰 공동 DJ로 나섰고, 즉석에서 라이브로 노래를 부르기도 했다. 전종 깊은 프로그램은 아버지의 것이었다. 아버지는 1980년대 이후 대표적인 포크가수로 활동해 온 임지훈(사진)이다.

임지훈이 1993년 오늘, 서울 대학로 충무2라이브홀에서 공연을 마쳤다. 2월12일부터 그해 100회 공연을 이어가겠다는 목표 아래 펼친 1차 무대였다. '종이비행기에 편지를 쓰자'는 주제를 내걸고 임지훈은 1차 공연에 이어 4월과 9월 각각 2, 3차 무대에 올라 100회 콘서트를 마무리했다.

당시 임지훈은 세 차례에 나눠 펼치는 무대에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올랐다. 1980년대 중반 이후 가수들의 소극장 공연을 선두에서 이끈 그의 작업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런 노력으로 임지훈은 1997년 KBS 2라디오 '홍성관 이의선의 연예가산책'이 조사한 '광복 50년 대중문화를 빛낸 스타 20'에서 가장 많은 공연을 펼친 가수(1500여회)로 기록됐다.

1993년 2월 말 '나는 바보가 참 좋다'는 시집을 내고 60여편의 시를 선보인 임지훈은 1982년 MBC '대학가요제'에 작사가로 나선 뒤 1984년 '김창완과 꾸러기들'의 멤버로 무대에 나서기 시작했다. 1987년 '사랑의 썰물'로 솔로 데뷔했다. 노래에 담긴 애잔한 정서와 음성으로 당대 대중의 커다란 관심을 모았다. 또 같은 앨범에 담긴 '회상'은 앞서 김창완이 이끈 산울림의 노래이기도 했지만 임지훈의 노래 역시 잔잔하면서도 회한에 젖은 듯한 목소리로 여전한 사랑을 받고 있다.

임지훈은 고 김광석의 본격적으로 무대에 서게 하는 계기를 마련해준 주인공이기도 하다. 1982년 서울 무교동의 한 라이브 카페에 김광석을 소개했다. 윤여석 기자 tadada@donga.com

빅마우스

●"트로트가 잘못된 장르인가? 눈에 안 띄게 조용히 노래 불러야 하나?"(가수 홍진영) 13일 '연예계에서 나갔으면 좋겠다. 트로트 부르러 온 작사가 몸매로 관심 받고, 싫다'는 SNS 악플에 대해.

●"서울은 제2의 고향."(배우 유재석) 13일 방송한 MBC '섹션TV 연예통신'에서, 주연 영화 '독수리 에디' 홍보차 내한해 한국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며.

편집 | 고창일 기자 ico@donga.com

sizer

특허받은 남성 기능성 건강팬티

www.sizer.kr

당신도 모르는 사이 사타구니를 긁고 계시지 않나요?

남성은 신체조건상 음낭과 음경으로 나뉘어지는데 음낭의 아래 사타구니 주변은 통풍이 잘 되지 않아 다습하며 스킴(마지방성남성분비물)등 곰팡이성 유해세균 등이 서식하기 좋은 조건이 형성된다.

시저! 남성의 중요한 부분을 항상 쾌적하게 유지

남성의 사타구니가 습하거나 가려우면 성관계시 여성에게 해가 될 수 있다. 이 처럼 남성 실 청결은 여성의 건강과도 직결 된다. 또한 좋은 팬티를 고르는 기준이라 하면 피부에 닿는 촉감이 부드럽고 가벼우며 끈적임 없이 보송보송하고 산뜻해야 한다. 남성 기능성 팬티 '시저'는 사타구니, 고환, 음경을 3단 분리하여 땀이 덜 차고 보송하게 유지해 준다. 골프, 등산, 조깅 등 활동량이 많은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 하루종일 앉아 있는 사무직 직장인 등 모든 남성에게 강력히 추천한다.

쇼핑몰 : www.sizer.kr
문의전화 : 1577-5579

한 손으로 편안하게 주머니형 디자인

팬티 앞면의 주머니 덮개는 소변을 볼 때 허리 밴드를 내리지 않아도 되는 디자인으로 한 손으로는 핸드폰을 받으면서, 다른 한 손으로는 편안하게 소변을 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남성을 위한 3단 분리 디자인

예로부터 남성의 고향을 차갑게 해야 정력에 좋다 하였습니다. 정자를 생산하려면 고향의 온도가 체온보다 2-3도 정도 낮아야 합니다. 남성 기능성 건강팬티 시저는 사타구니와 고환, 고환과 음경, 음경과 하복부가 확실하게 3단 분리되는 디자인으로 통기가 우수하여 땀이 덜 차고 온도 조절 능력이 뛰어난 기능성 팬티입니다.

항균, 항습, 항취 ATB-100

물을 빨리 흡수하고 배출해 습기로 인한 세균의 번식을 억제하여 뛰어난 항균 효과를 발휘합니다. 또한, ATB-100원단에는 은사까지 함유되어 높은 항균성을 지니며 여러번 세탁해도 항균력이 떨어지지 않는 기능성원단입니다.

특허받은 팬티 시저

본 발명은 남성의 음경과 음낭이 각각 격리됨으로써, 땀에 의한 불편함이 해소되어 남성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발명특허 제 10-1212608호

시저골드 SIZERGOLD

시저레몬 SIZERLEMON

시저실버 SIZERSILVER

시저네이비 SIZERNAVY

시저블루 SIZERBLUE

시저와인 SIZERWINE

시저레드 SIZERRED

시저지브라 SIZERZEBRA

시저웨이브 SIZERWAVE

시저웨이브스카이 SIZERWAVES